

기고

박종열 함평경찰서장



‘내부(직원)만족은 곧 외부(주민)만족’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갑질 문화’로 인하여 조직 내 상·하간 불통(不通)을 해소하고 양성간의 평등 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2020년 상반기 경찰청에서 실시한 내부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함평경찰서가 인사·성과, 근무환경, 복

지, 의사소통, 조직분위기, 직무, 교육 등 종합만족도에서 전남청 내 만족도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양한 업무형태와 민원을 접하는 경찰조직의 특성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근무환경이나 직무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여 내부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외적

동기부여 보다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적동기부여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이점득심(耳聽得心)의 효율적인 소통채널의 가동과 더불어 ‘내부(직원)만족이 곧 외부(주민)만족’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세계 1위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는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고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는 우리 직원들이다. 회사가 직원들을 돌보면 직원들은 저절로 고객을 돌볼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유형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 보다 외부 고객(주민)들에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경찰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더크다 할 수 있다.

높은 내부 만족도는 양질의 경찰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이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치안역량임을 각인하고 조직의 내부만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社 說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광주에서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있다. 2차 유행 초기 확진된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금양오피스텔이나 대전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감했다. A씨의 거짓 진술은 집단 감염의 매개가 된 금양 오피스텔 관련 조사를 지연시킨 요인이 됐다. 방역 당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시작된 배드민턴 클럽 확진자 B씨와 관련한 역학조사도 아쉬움을 남겼다. B씨는 클럽 대항 경기 참여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B씨가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1주일 지나 확진자가 나온 다른 클럽의 회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60여명이 모인 행사가 열렸고 B씨가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이 접촉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일부 접촉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바이러스는 전파됐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 직후 동선과 접촉자 조사에 착수하지만, 초기에는 진술에 의존 수밖에 없다. CCTV, 신용카드 결제명세서 분석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확진자의 진술이 감염 차단의 골든 타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고의로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동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공개를 꺼리는 확진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가법게 여긴 동선 하나는 다수 이용자를 통한 집단 감염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인식으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다.

전과력이 강한 감염병 특성 탓에 확진자들이 죄의식을 갖거나 움츠러들고 일부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역학조사에 더 성실하게 임해 가족, 주변 사람, 지역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보건당국도 확진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 등으로 조사에 혼선을 야기한 사람은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 주택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통계에 따르면 61.4%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아파트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4837건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이후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공간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관련시설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대피공간 및 경량칸막이 부근

에는 물건적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 초기화제시나 가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때 손쉽게 파괴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통로의 역할을 하며,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다.

우리에게 따뜻함과 편안한 휴식과 안락함을 주는 보금자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을 확실히 숙지하여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자.

이개원/무안소방서 119안전센터

생활속의 드론 테러

테러는 다중을 위협하고 많은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일상 속 광범한 행위들이 시민들을 다치게 하는 테러로 변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레저·구조·사회전반 활동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드론에 의한 테러이다.

드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개인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손쉽게 기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체 오류로 인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형 드론이라 하더라도 추락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조종자 준수사항에서는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

소 주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의 드론 사용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드론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아 조종자를 찾아 처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에 의한 생활 속 테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종자가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드론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활 속의 작은 테러 예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박건우/원도경찰서정보경비계 순경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